예 배 WORSHIP

November 17,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안내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로마서 1:16-17

복음의 능력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세상 모든 민족이

헌신과 나눔

봉 헌 / 유동숙 집사, 최내권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비추소서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최선윤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레위기 25:8-17

이스라엘의 절기 - 희년

오늘의 찬양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마시고
주 성령 버리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날 붙드소서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피흘린 모든 죄악에서 주의 의를 노래하도록
내 입술 여소서 주 찬양하며 전파하도록
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 나나나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안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성찬예식이 있다. 더없이 겸손한 마음과 경건한 간구,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높이려는 신실한 태도로 나아와야 한다. 그런데 엄마가 깨끗이 치우라고 할 때 안보이게 밀어 넣고 이불 속에 감추고 청소 다했다고 멀쩡하게 거짓말하는 어린 아이가 우리 자신이 아닐까.

오늘, "정결한 마음 주소서"라고 찬양하며 진실한 회개와 겸손한 고백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씻기를 구하자. 그래서 무질서한 욕망에서 비롯된 비참한 악을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몰아내자. 여전히 죽지 않았고 꿈틀대는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것을 통회하자. 때로는 분별없이 말하고 조급한 것을 돌아보자. 불평과 험담에는 잠이 번쩍 깨지만 거룩한 예배에는 그렇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함을 탄식하자. 기도를 아주 소홀히 하고, 성찬을 행할 때도 도무지 열정이 없이 냉랭한 것을 슬퍼하자. 화내고 툭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끊기로 하자.

형통할 때는 아주 기뻐하지만 역경이 닥칠 때는 쉽게 약해지는 것을 슬퍼하자. 선한 결심은 매우 자주 하지만 마침내 내는 결과는 아주 형편없는 것을 이제는 돌이키자.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김을 알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고치고 더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결단하자.

한 주간의 기도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내 손에서 사라질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니 한숨이 나를 누릅니다, 이제 내 삶 속에 날 붙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한숨이 감사와 소망의 찬양 고백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헌 전도사
Youth Minister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9

교회와사역

신자의 감사는 달라야 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약4:13-17)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다. 자신감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성실히 수행하되 15절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만약 자기 계획이 그분의 뜻과 어긋나서 그분이 수정 취소시키더라도수용하고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그랬지 않는가?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 협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당신에 대한 소망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절대로 놓지 말라 것이다. 설령 스스로 세운 계획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실행했지만 완전히 무산된다 해도 자신에게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도 반드시 드러남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따라서, 신자라면 당연히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고, 최소한 그분의 주도하심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신자의 감사는 달라야 한다.

일상에 감사하라.

첫째로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 감사가 없거나 너무 부족하다.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내 능력으로 이뤘다고 착각한다. 일상적인 일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박의 은혜만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그것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크고 급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평소 에 말씀도 보지 않는다.

우리 생명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크고 중요하지 않는 일도 단 하나 없다. 작은 일에 그분의 은혜를 발견해 누리지 못하면 정작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큰일에 숨겨진 은혜에 무감각해진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받은 복만이 아니라 평소에 지나쳤던 사소한 일상에 더 감사하자. 그것이 신자가 행할 참 감사의 출발이다.

현재의 고난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현재의 고난도 그분이 당연히 주관하신다. 그분이 주관하신다면 당연히 그분의 은혜도 있다. 신자가 행할 두 번째 참 감사는 현재의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고난 중에 억지로 감사 거리를 찾으려 하거나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잠깐만 유용할 뿐이다.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감사가 아니면 지속되지 않는다.

좋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초보자도 가능하다. 그 때는 또 유난히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있고 인생을 주관하며 기도에 응답해준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려는 뜻이다. 신자의 믿음과 인격이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성숙되는데 최고의 수단은 사실상 고난뿐이다. 불만을 억지로 참거나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다. 종교적 의무로 행해도 다 참고 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로가 되어서 자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 들게 된다. 그런 와중에 믿음과 인격이 자랄 여지는 없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거룩한 뜻을 당장에 모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고난 중에 어려운 여건으로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고난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박진호 목사(멤피스 커비우즈 한인교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 역 / 행 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가족, 성도와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시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간입니다.
2. **주일성경공부**가 계속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 장영헌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3. 다음 주일(24)은 **추수감사주일** 입니다. 자녀들이 감사 찬양을 준비합니다. **성찬예식**을 가집니다.
4. **모이기에 힘씁시다. 새벽 기도회** (화-금 6a.m. / 토 7a.m.)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금요 찬양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5.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시다.
7.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직장과 미래를 위해 기도합시다.
8. 2019년 사역 정리 및2020년 사역 준비와 **예결산**을 위해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전진과 변화를 위해 순종과 내려놓음으로 준비합니다.

11/12월 사역 ▶11.10 Oikos 셀 사역 / 11.24 추수감사 주일 & 성찬예식 / 12.12 Oikos 사역 / 12.22 성탄감사 주일 / 12.24 성탄축하의 밤 /12.31 송구영신예배 & 성찬예식
▶예결산 사역 / 사역 리뷰와 재정비

♥생일 축하♥ 김지수(11/2) 정연미(11/4) 홍정임(11/4) 박진성(11/5) 정하민(11/23)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1/10	11/17	11/24	12/1
	구은강집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고순제전도사
금요예배기도	11/15	11/22	11/29	12/6
	구 민집사	최선윤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11/10	11/17	11/24	12/1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11월			12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 씀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복음에 빚진 자 / 로마서 1:8-15**

모두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 했다. 이 거룩한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인해 로마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우리가 바울처럼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여긴다면, 자신을 내세울 수 없게 된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던지간에 그것은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느꼈던 이 부채감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하며, 빚진 자로서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형제자매이므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겸손히 세워갈 수 있다. 2천년 교회 역사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조선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게 되었지 않는가. 작은 섬김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감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자.

복음의 능력 / 로마서 1:16-17

십자가의 이중성, 최악의 범죄자를 사형하는 형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도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랑하며, 증인이 됩시다.

말씀요약

복음의 능력 / 로마서 1:16-17

바울도 복음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마침내 예수님을 정죄하며, 제자들을 이단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고린도전서 1:22-24 말씀처럼, 복음에는 당시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이다. 하지만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고, 반란 범이나 최악의 흉악범을 사형하는 최악의 형벌이었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 유대인이 거리끼는 것이었고, 둘째,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었다. 심지어 신명기 21:23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당시 십자가는 저주와 패배의 상징이며 결코 승리와 영광이 될 수 없었다.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통해 나타난 복음이 좋은 소식일 수가 없었던 이유이다. 거리끼는 것이 되기 쉬웠다. 또한, 헬라인에게는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수 없으며, 패배한 신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헬라인의 고매한 철학에도 없는 능력(헬라어 두나미스)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선포한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표현, '이신칭의'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 무엇으로 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는 선포이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의롭게 된다. 이제 성도는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 성화되는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모형은 유월절 사건에서 이미 예시된 바 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칠하도록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믿어 실행함으로써 가정의 장자를 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까지 포함한다.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중의 하나가 오직 믿음, sola fide 였다. 그런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영향으로 변질된지 오래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질 것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과 자녀가 잘 되는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받았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자랑해야 한다.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한다. 복음의 자랑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성숙해 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복음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꿈, 섬김, 행복

November 17, 2019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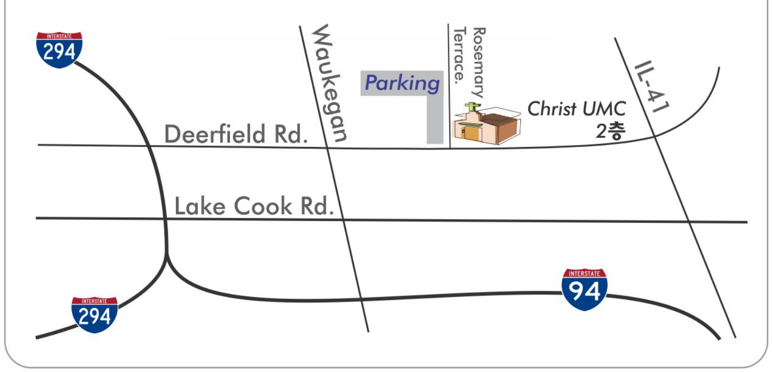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감사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크리스천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다